

이렇게 기도하라! - 4.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9-13절

9. 그려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연합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주기도 문'은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어디에도 '나' 혹은 '나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점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 사회에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공동체의 영성 말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독립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것을 큰 가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독립성'이라는 말이 오로지 '개인적인 가치'를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삶을 산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모여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위기 중에 하나는 '교회 이 공공성'을 잃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므로 인해 이 사회와 이웃들에게 어떤 공공의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라는 말이 국가와 인종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제 대한민국은 '다민족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젠더 이슈'라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 이 서로 혐오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돋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며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지역주의'가 살아 있어서, 선거 때만 되면 이러한 갈등을 유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충만한 사회에 ‘주기도문’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야말로 이 사회를 치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갈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주기도문을 외워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라고 말입니다.
예배소서 4장 1-6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갈린 내가 너희를 전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끝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평안’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당시 참 인상적이었던 인사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그렇게 쓰지 않지만 신학교 혹은 교회에서 헤어질 때면 ‘go and peace!’라고 인사 했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설교 때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탕자의 관점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읽으며 깨닫게 된 것 때문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는 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즐거움과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돌려놓았고 더 나아가서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의 아버지 뿐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도 되심을 잊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구할 때, 나를 위한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기도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형식’이 아닌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교인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인들이 기도할 때,

선생님이 기도할 때,

자식과 부모가 기도할 때. . .

2.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주는 ‘친밀성’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룩하시다’는 초월성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는 익숙하고 편안하고 친밀하고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확실한 발음인지 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에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해 불렀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분의 존재를 거룩하게 의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카이 제서니는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친밀한 아버지 + 거룩한 타자’라는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의미는 분리되거나 구별된 ‘완전한 타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분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습

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불 앞에서 소멸되는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친근한 우리 아버지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엄격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친근한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 분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크리스천 공동체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분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문제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나’를 높이기 위해 애써 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분의 거룩하심을 이용해 사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거짓된 삶과 사역을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목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거룩의 의미가 나로 인해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매일 묵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